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어울림' 전시 공간인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이장우, 최승효 가족(아래)에서 오는 9월 흥겨운 문화 잔치가 펼쳐진다. /나평주기자 mjna@kwangju.co.kr

근대사 문화의 보고 이장우·최승효 가족

알록달록 디자인을 입힌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시민 모두가 어려워져 광주의 대표 전통 한옥인 이장우 가족(광주시 지정 민속자료 1호·1899년 건립), 최승효 가족(시 지정 민속자료 2호·1920년)을 알록달록한 디자인으로 볼 들인다.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 5일·이하 디자인비엔날레)가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인 '어울림'(담양 큐레이터 박유복)을 통해 최승효·이장우 가족 등 광주 근대역사 문화의 보고(寶庫)인 남구 양림동 일대에 새 옷을 입힌다.

'어울림'은 양림동 일대에서 펼쳐지는 길거리 프로젝트이다. 남도민의 멋이 물씬 풍기는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 가옥에서 전시와 풍성한 부대행사를 열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작품을 만들어 전시한다.

전시는 이별 고백의 정원과 대문간, 꽃간채, 행랑채, 사랑채, 안채 등지에서 '고귀와 미래의 어울림'을 주제로 펼쳐지며 시민과 디자이너, 미술인 470여명, 기업 370여곳이 참여

시민·미술인 등 470여명 '어울림' 프로젝트 고택 정원·사랑채 등에 예술 1천점 수놓아

해 1천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디자이너들이 이들 가옥에 있는 소화기, 조명등, CCTV, 소화전 등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유급채, 갑종옥, 이마산, 고근초씨 등의 작가들이 디지털 어항, 예술화장실 등을 선보인다.

이장우 가옥에서는 시민들이 한복을 곁쳐 차려 입고 이곳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한복사진관'과 동시대 이상림 박물관장의 지도로 천연 염색, 도자기 페인팅을 체험하는 행사도 결들여진다.

또 이상봉, 한복려, 유희준, 정국현씨 등이 강사로 나서 '미래의 남도 디자인코드'를 주제로 다양한 생활 속 디자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규방다담'도 열린다.

최승효 고택에서는 전시 기간 중 토·일요일 오후 2시~5시까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차 시음', 남도의 차와 소리가 어울려진 '하우스 파티' 행사 등이 열린다. '하우스 파티'는 단체 50인 이상의 신청을 받는데, 행사비용 등은 참석자 부담이다.

양림동 거리 일대에서는 근대 역사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사진전과 시민들이 양림동의 문화 지도를 그리는 'SOS 양림동 문화지도' 등의 참여 행사가 마련된다.

이 밖에도 디자이너들이 지역 중소기업 CEO들의 명함을 디자인한 작품(비즈니스 카드)과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한 배너를 각각 광주디자인센터와 광주전원 일대에서 전시한다.

또 디자이너들이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단을 선정해 디자인비엔날레 입장객들에게 할인 행사를 하는 '디자인이더 추천하는 맛집, 맛집'도 눈길을 끈다.

박유복 큐레이터는 "지난해 열린 광주비엔날레가 대인시장에서 구성된 놀이 마당을 만들었다면,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양림동 일대에서 흥겨운 잔치가 펼쳐진다"고 말했다.

한편 '어울림'전의 전시 공간인 최승효 가옥은 정면 8칸, 측면 4칸의 일자형 팔작지붕 집으로 독립운동가 최상현(崔相鉉)의 집이었으며, 대청에 독립운동가들을 파신시했다고 한다.

또 이장우 가옥은 광주의 대표적인 부호였던 정남교의 아들 정병호가 건축하였고 1965년 동강학원과 나주 동신대학교의 창립자인 이장우가 사들였다. 안채는 'ㄱ'자집 형태로 정면 6칸에 방마루, 1칸의 작은방, 2칸의 대청, 2칸의 큰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가장 한국적인 멋...

전남도립국악단 매월 한차례 무형문화재 초청 '토요 공연'

국가와 각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는 우리 전통 문화를 인식하게 하는 뿌리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지정만 해 두고 지인이나 발표 무대 등을 제공하는 데는 인색한 게 사실이다.

전남도립국악단(단장 김만석)이 매월 한차례씩 전남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초청, 무대를 마련하는 의미있는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립국악단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되는 '토요공연' 중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무형문화재 초청 공연을 열고 있다.

현재 전남도 무형문화재는 총 41명(예능 32명·기능 9명)으로 이중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는 총 18명이다.

지금까지 김동연(우도농악 설장고), 김향순(동

편제 흥보가)씨가 공연을 가졌으며 오는 27일에는 강송대(남도잡가) 선생을 초청한다.

이어 박강열(진도 북놀이·7월25일), 안부덕(동편제 춘향가·8월 20일), 박대업(곡성 죽동 농악·9월 26일)선생의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김만석 단장은 "요즘 인기있는 퓨전 공연도 모두 전통의 뿌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무형문화재 분들을 모셔서 공연을 갖는 게 의미가 있다"며 "무형문화재 초청 공연은 단원들과 교감하고 자극도 되고, 관객들에게도 우리 전통의 뿌리를 느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2월 첫발을 댄 전남도립국악단의 토요공연은 매 주 토요일 공연을 진행, 지금까지 모두 243회를 열어왔으며 하루하루 여행상품과 연계, 외국인들과 해외교포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의 061-375-1633,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예고, 16~23일 예향제 개최

젊은 예술가들의 요람인 광주예술고등학교(교장 윤영철)가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예향제'를 개최한다.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국악과 학생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는 국악·음악·미술·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는 무대다.

16일 열리는 국악과 공연은 정악·가야금병창·대금산조와 사물놀이, 관현악 합주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17일에는 음악과 학생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재미씨가 지휘를 하는 관현악 합주가 펼쳐지며 클라리넷 2중주, 바이올린, 피아노 등 다양한 합연 무대가 진행된다.

최근 세종대 콩쿠르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예향의 위상을 높인 무용과는 18일 같은 장소에서 공연을



가진다.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부채 산조', '후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태평상대' 등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보여준다.

그밖에 미술과, 한국화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는 16일부터 23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문의 062-520-8811, /김미은기자 mekim@

사랑 & 이별

주소연 춘향가 발표회...17일 문예회관

주소연(사)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장·사) 춘향가 발표회 '사랑 그리고 이별'이 17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문예회관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남도소리 상설 무대 초청 공연이다.

이번에 주씨가 선보이는 '판소리'는 보성소리 동편제 김



세종판이다. 김세종-김찬업-정근-정응민-조상현으로 이어지는 김세종판 '춘향가'는 조의 성음이 분명하고 사설도 잘 들들어온다는 평가를 받는 소리다.

주 씨는 이날 공연에서 관현투루배를 들고 풍류와 춘향, 방자, 한단이가 즐겁게 노니는 장면, 풍류와 춘향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 춘향과 몽룡의 이별 대목까지를 2시간에 걸쳐 보여준다.

조상현·김수현 선생을 사사하고 지난 2004년 임방울국악대제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씨는 현재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현재 전남대학교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판소리 이론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이번 공연의 고수는 임영일씨, 사회는 강현구씨가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저가
광안구	신안동	112/34	191㎡	7천2백
	대우리부동	122/37	191㎡	7천7백
	월곡동	102/31	8천7백	6천
	대우리부동	112/34	191㎡	191천1백
	신안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남구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동구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북구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서구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
	대우리부동	112/34	191㎡	8천9백